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Revenue Statistics 2013

OECD. 372p. 2013. ISBN(9789264204218)

OECD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세입통계 (Revenue Statistics) 보고서는 개별 회원국가의 조세 수준 및 구조 등에 대해 현황 및 추이를 수록하여 정부세입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버전에서는 1965년부터 2011년까지의 확정치를 수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원국의 2012년 잠정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Revenue Statistics에서는 회원국 간 자료의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프레임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세목은 크게 소득세, 수익 및 자본이득세, 급여세, 재산세,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세로 분류하며, 여기에 사회보장기여를 포함한다. 정부의 각 차원은 국가, 연방 또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세수입의 추이, 조세수준 및 구조, 국가비교, 일반정부 부문별 조세 등 4부에 걸쳐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개별 회원

국 세부 데이터와 OECD 평균치를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2012년 조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평균 34.6% 수준이며, 한국(26.8%)은 멕시코(19.6%), 칠레(20.8%), 미국(24.3%) 등과 함께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개별국가의 조세정책을 가늠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간 비교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적·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OECD Government at the Glance 2013

OECD. 198p. 2013. ISBN(9789264201330)

OECD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정부개요 (Government at the Glance) 보고서는 정부성과와 관련하여 주요 측면에 대해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거버넌스에 대한 각 회원국의 진척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투입(input), 과정(processes), 산출 및 결과(outputs and outcomes)의 세 가지 큰 틀

로 구성되어 있고, 9개 장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장별 내용은 정부신뢰·정책효과성·거버넌스 아젠다(1장), 전략적 거버넌스(2장), 공공재정과 경제(3장), 예산집행 및 절차(4장), 공공부문 고용(5장),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6장), 공공조달(7장), 정부공개(8장),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9장)을 담고 있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전략적 거버넌스’,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수록되었으며 사법부문,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교육, 사법 및 세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시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략적 역량 확보, 강력한 제도 구축, 효율적 수단 및 프로세스와 측정 가능한 명확한 결과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World Development Report 2014:
Risk and Opportunity - Managing
Risk for Development**

World Bank. 344p. 2013.
ISBN(9780821399033)

지난 25년간 세계는 유례없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목격했다.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 통합, 경제 개혁, 기술의 현대화, 민주화의 길에 들어섰다. 정체되었던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수 세대에 걸쳐 박탈을 경험했던 가족들은 가난을

탈피하기 시작했으며, 수억의 인구가 보다 나은 생활수준, 과학,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기회와 함께 실업, 질병, 사회적 불안, 환경 파괴와 같은 위기가 공존한다. 위기를 무시하면 어렵게 얻은 혜택을 잃거나 이러한 혜택을 창출해 낸 사회적, 경제적 개혁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14: Risk and Opportunity - Managing Risk for Development는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변화를 거절하기보다는 변화가 담고 있는 기회와 위기 모두에 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위기의 효과적 관리는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위기 관리에 개인의 노력과 책임은 필수적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규모가 크고 시스템적인 위기의 관리에는 사회적 환경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위기 관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원과 정보의 부족, 인지 및 행동 결함, 시장과 공공재의 결여, 사회적 외부효과 및 소외 등 개인이나 집단이 당면하는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회경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제기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사람들이 위기를 관리하는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느 때에 국가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어느 때에 간접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으로 그쳐야 하는가? 정부는 스스로의 위기 관리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역량이 부족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

관리가 개발 의제에 스며들 수 있는가? The WDR 2014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통찰과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Risking Your Health: Causes,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s to Prevent Risky Behaviors

■ Damien de Walque. 204p. 2013.
ISBN(9780821399064)

약물 남용, 흡연, 알코올, 비만을 초래하는 식습관, 위험한 성행위 등과 같이 공공보건에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행동들은 전통적으로 부유한 국가들과 연관되어 왔으나 오늘날 저소득국가에도 매우 만연되어 있다. Risking Your Health: Causes, Consequences, and Interventions to Prevent Risky Behaviors는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며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조명하고 있다. 이 모든 위험한 행동들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행동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쾌락과 그 행동의 결과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이런 행동이 고립된 상황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류집단의 압력, 부모의 영향,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등은 종종 이러한 행동을 일으키거나 지속시키거나 끊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험한 행동의 결과는 그 행동을 선택한 개인이 먼저 경험하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접흡연이나 HIV 감염과 같이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이 직접적인 것도 있다. 이런 행동들의 장기적 결과는 가계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악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을 통한 보건개입은 단순한 캠페인보다 행동변화에 더 효과적이다. 지식을 구체적인 행동변화로 바꾼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세제, 보조금, 조건부/무조건부 현금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이 위험한 행동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책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개입들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답함으로써 정책입안자, 학자, 그리고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3/2.

■ OECD. 225p. 2013. ISBN(9789264200975)

2013년 11월에 발간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No.94)에서는 2014년 세계 및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 재정위험, 신흥국 금융 불안 등 주요 위험요인이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2013년 보다 0.9% 높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GDP 성장률은 '13년 2.7%에서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신흥국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상 4.0%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무역, 투자, 신용 등이 크

계 증가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회복기에 비해 약하고 완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위험요인으로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철회(tapering) 가능성과 부채한도 문제, 신흥국의 부진 심화 가능성, 유로지역의 은행부문 취약성, 일본의 재정상황 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OECD의 주요 회원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자산가치의 상승과 고용회복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본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유로지역은 경제심리 회복과 재정긴축 속도완화 등으로 침체로부터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확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는 높은 가계부채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교역 증대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3.6% 보다 소폭 높은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수출·기업투자 등에 기반한 회복세 강화로 인해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범위 2.5%에서 3.5%까지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재정여력 등을 바탕으로 각종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에 대비하여 중기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 계획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율을 제고하고,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OECD Economic Surveys: Israel 2013

OECD. 110p. 2013. ISBN(9789264183186)

최근 OECD에서 발표된 이스라엘 경제검토 보고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통화·금융정책, 사회정책 및 보건의료 문제, 기업환경, 환경정책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정리하였다.

최근 5년간 이스라엘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OECD 평균 실질경제성장률 0.6%를 6배나 상회하는 3.6%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의 확대,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 OECD 최고 수준의 상대적 빈곤율,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0.9%를 크게 웃도는 최고 수준으로 이스라엘 가계 중 약 20.9%가 상대적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계 여성과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의 매우 낮은 고용률로 이들의 가계 소득은 50%이상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OECD는 전국적인 Welfare-to-Work 프로그램을 서둘러 도입하고, 장애인 수당을 개혁, 근로유인세제(EITC)를 확대하여 근로유인형 복지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빠른 인구고령화와 의료수요 증

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 보건의료지출에 대한 투자가 7.7%로 OECD 평균 9.5% 보다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1990년대 초반, 많은 고숙련 의사와 간호사가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으나 이들이 은퇴연령에 진입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의 부족에 직면한 상태이다. 결국 전체 보건의료지출 중 공공지출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약 70%에서 최근 60%로 하락하였다. 이를 위해

OECD는 보건의료를 지속하고 관련된 공공기금을 적절히 유지, 의과대학과 간호사 훈련을 확충하면서 기존 의료 인력의 활용도를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 편역 | 김태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라기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연가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